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윤 x x	학번	2019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1.14 ~ 2.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근처에 스카이 트레인 역이 있어 다운타운을 가거나 다른 곳을 가기 편리합니다. 학교 자체는 작은 규모이지만 밴쿠버의 문화를 보고 느끼기에 안성맞춤인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서브웨이, 스타벅스, 팀홀튼을 이용할 수 있었고 건물이 전반적으로 깔끔했습니다.
수업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전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 동안의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형 수업도 수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수업 중에는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다루어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수업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간혹 주어지는 숙제는 간단하여 홈스테이 귀가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발표는 약간 준비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Activity	주마다 2번 정도 오후 수업 대신 야외 활동을 진행합니다. 야외 활동에는 그랜빌 아일랜드, 컬링장, 밴쿠버 박물관, 아쿠아리움, 카필라노 서스펜션 다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장소마다 선생님이 해당 장소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간혹 거기서 해야할 작은 미션을 주십니다. 방문했던 장소 모두 시간은 충분하게 주어져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시간이 되면 다시 모여서 헤어집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밴쿠버에 도착하고 며칠은 되게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거의 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날씨가 흐리고 종종 비가 내렸습니다. 한번은 눈이 많이 내려서 이틀 정도 학교가 휴교했었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씨에 적응한 뒤로는 딱히 날씨에 신경 안 쓰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p>
안전	<p>걱정과는 달리 홈리스나 밤거리가 크게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밤에 홈리스나 헤이스팅스 및 차이나타운 거리는 최대한 피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p>
숙소	<p>저희 홈스테이 가족은 샤워 시간이라든지 가정 내 규칙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밴쿠버에서 만나는 홈스테이 가족은 대부분 아시아 가족분들이 많지만 간혹 유럽 가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시고 잘 챙겨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식사	<p>매일 점심은 홈맘께서 샌드위치를 싸주셨습니다. 샌드위치도 항상 같은 햄 샌드위치가 아니라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녁은 보통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다운타운에서 먹었습니다.</p> <p>홈스테이 내의 저녁 식사는 목살을 구워주시거나, 스파게티를 해주시는 등 다양한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저녁을 먹을 때면 항상 4~5시쯤에 홈맘에게 오늘은 다운타운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p>
교통	<p>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구역이 보기 쉽게 나뉘어져있어서 길 찾기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로 가고 올 때에는 주로 버스를 타거나 걸어갔습니다.</p> <p>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학교에서 준 컴패스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컴패스 카드를 이용해서 시간만 잘 준수한다면 거의 3주 내내 공짜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p> <p>그리고 단기어학연수 담당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Transit 어플을 이용하면 편하게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어디에 있고 언제 도착하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도착지에 몇 시에 도착할지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Transit 말고도 구글 지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구글 지도에서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이 되지 않던 것 같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122,688원	저녁 비용 및 간식 포함
쇼핑	172,330원	기념품 쇼핑
여행	118,157원	그라우스 마운틴, 플라이오버
기타	169,823원	현금 계산 등
합계	3,485,337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밴쿠버의 겨울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저는 두꺼운 패딩을 들고 갔는데 정작 입은 날은 별로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패딩을 여러 개 챙기는 것보다 얇은 잠바 몇 개에 두꺼운 패딩 하나 정도 챙겨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밴쿠버의 겨울은 거의 매일 흐리거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거면 좋습니다.

또한, 밴쿠버 시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곳을 찾아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말고도 노스 밴쿠버, 버나비 등 여러 동네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가게들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을 많이 챙기는 것보다 트래블월렛이나 트래블로그와 같은 카드에 돈을 충전하셔서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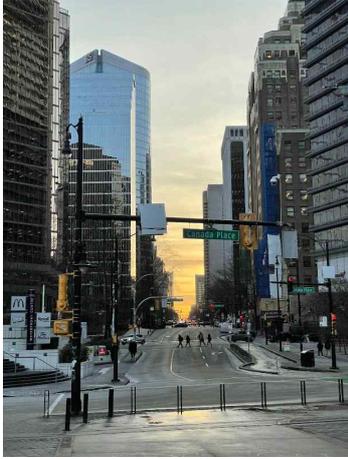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비록 날씨가 우중충해서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3주였습니다. 밴쿠버의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여러 음식들을 먹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를 신청한 이유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보다 해외 경험을 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밴쿠버는 이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Langara College의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와 밴쿠버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은 저에게 있어 의미가 큰 경험이었고, 만약에 주변에 단기어학연수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무조건 해봐라고 추천할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캐나다 플레이스 주변 거리



그랜빌 아일랜드



스탠리 파크



가스타운



가스타운



재즈바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고 x x	학번	2021 x x x x
파견국가	Canada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age	기간	2024. 01. 14 ~ 02. 04 (3주)

1.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age는 Vancouver, BC W 49번가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저희는 A 빌딩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 내부에는 카페테리아와 서브웨이, 스타벅스, 팀홀튼 등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가격은 조금 비쌌습니다. 또한,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Canada Line을 탈 수 있는 역이 있었으며, Canada Line을 이용하여 다운타운까지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	수업은 한국에서의 수업과 달리 대개 활동적인 수업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으며,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하시고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하시고는 하셨습니다. 또, 소통을 중요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선생님과도 생각을 공유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캐나다의 문화와 Global Citizen ship 등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 양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회화와 문법도 수업하였습니다. 저희의 경우, 눈으로 인하여 2일 정도 학교가 휴교를 하는 바람에 하루는 2시간 정도 온라인(Microsoft Teams)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지참하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ctivity	오후 시간에는 주 2~3회 정도 야외 활동이 있었습니다. Capilano suspension bridge를 제외한 모든 활동은 이후에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Capilano만 거리가 너무 멀어 다시 Langara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가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계획 짜시길 바랍니다.) Activity 중 가장 재미있던 활동은 바로 컬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 근육통으로 고생하여 파스를 붙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컬링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보고 싶은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다른 활동은 중간중간 미션이 있어서 조금 바쁜감이 없지 않아 즐기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은 느낌이었습니다.
--	--

1.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Raincouver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고, 첫 주에 2일 정도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학교를 휴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비는 한국에서 만큼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니었고, 적당히 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 그냥 현지인들처럼 비를 맞고 다녔습니다.
안전	Vancouver는 대마가 합법이라 대마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Downtown 근처에는 대마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으며, Homeless People도 많았습니다. 야간에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하지는 않았으나, Homeless people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숙소	Homestay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Down stair에 방을 하나 주시고 화장실도 거의 혼자 사용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방의 온도가 조금 낮아 긴팔을 입고 생활해야 했으며, 실내 슬리퍼를 신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	저와 같이 지낸 Home Family들은 대만계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저녁으로 밥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은 홀맘이 싸주셨고, 과일을 좋아한다고 하니 매일 과일을 싸주셨으며, 쉬는시간에 먹을 수 있는 스낵도 싸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	제가 묵었던 집은 49번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 바로 앞에 위치하여 도보로 2분 정도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나왔습니다. 버스 타고 12분 정도를 가면 manitobast.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downtown까지는 길게 잡아야 1시간일 정도로 교통편이 좋아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1.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현금	CAD 300\$	환전한 현금
쇼핑	CAD 60.01\$	아울렛에서 구매한 옷 등

식사	CAD 150.67\$	저녁식사, 점심식사, 커피 등
생필품	CAD 48.54\$	기타 필요한 사항
관광	CAD 60.26\$	관광 다니면서 사용한 금액
기념품	CAD 367.25\$	-
AC 추가수화물	CAD 100\$	돌아오는 항공편에서 사용
합계	₩ 3,989,160	CAD 1\$당 ₩1,000으로 계산

1.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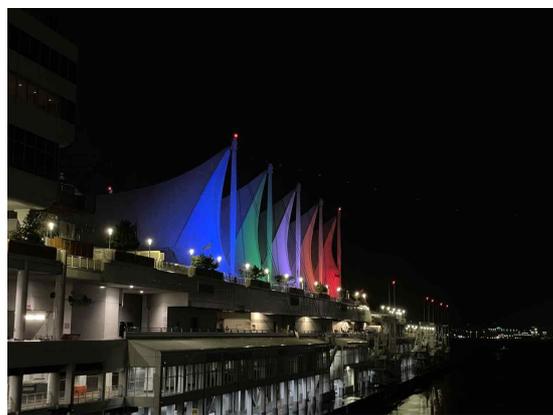
캐리어 무조건 큰 거 1개, 기내용 1개, 보조 가방 1개 들고 가세요.. 안그러면 저처럼 10만원 날립니다.. 그리고 메이플시럽 병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깨져버려서 캐리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 유연하게 계획을 짜세요..

1.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첫 해외경험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그냥 캐나다도 한국과 다름없이 사람사는 곳이라 다 똑같이 느껴집니다. 다만 문화만 조금 다를 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담배 냄새 많이 싫어하는 편이라 다운타운 쪽에서 대마냄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어요.. 그 점만 빼면 살고 싶은 도시이긴 했습니다.

1. 사진보고서(6장 이상)



Canada Place (Night)



Vancouver Convention Center (Night)



Granville Island
(Night)



Harbour Centre (Vancouver Lookout)



Gastown Steam Clock (Day)



Gastown Steam Clock (Night)



Kitsilano Beach



Capilano Suspension Bridge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 x x	학번	2021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기간	2024.01.14.~02.0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교내환경: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전경이 예뻐다.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많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둘러보았는데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과 모든 문들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자동문 버튼이 있다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수업	수업은 앉아 있는 것보다 서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회화 위주의 수업이 많았다. 영어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즐겁게 임할 수 있었다. 1주차는 캐나다에 대하여 2주차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마지막인 3주차에는 Global citizen이 무엇인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기, 조별로 정해진 주제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구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중간 회화에 필요한 문법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선생님께 글쓰기에 대한 첨삭을 받았던 것이 좋았다.
Activity	1주: 그랜빌 아일랜드 2주: 컬링, 아트 뮤지엄 3주: 아쿠아리움, 카필라노 브릿지 수업도 재미있었지만 반복되는 일정에 느껴지는 피로를 Activity가 해소해 주어서 좋았다. 모두 너무나도 즐거운 경험이었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컬

	<p>링! 경기로만 보던 컬링은 쉬워보였는데 이후 이를 동안 근육통에 시달릴 정도로 많은 힘과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재밌었다. 이외에 다른 실내 activity인 아트뮤지엄과 아쿠아리움도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볼거리들이 많았다. 어학연수 기간 내내 비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랜빌 아일랜드와 카필라노 브릿지는 흐린 날씨임에도 아름다웠다. 카필라노 브릿지는 절벽 위를 걷는 짜릿함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다. 또 다음에 그랜빌 아일랜드를 간다면 시장에서 처음 보는 과일들과 나나이모 바를 꼭 사서 먹고 싶다. 주변의 경치도 아름답지만 쇼핑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았다.(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캐나다 주민들도 쇼핑하기 좋다고 하셨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캐나다에 도착하고 딱 2일을 제외하고는 비와 눈이 종일 내려 흐린 하늘의 연속이었다. 밴쿠버는 여름을 제외하고 흐린 날씨와 비, 눈이 익숙하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우산은 잘 쓰지 않고 방수가 되는 가방과 옷차림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나중에는 나도 귀찮아서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만 쓰고 다녔다. 밴쿠버의 추위는 예상외로 한국보다 덜했다. 후반에는 패딩이 아닌 후드 집업이나 바람막이(경량 패딩)로도 충분했다.</p>
안전	<p>겨울의 밴쿠버는 해가 일찍 진다. 5시만 되어도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길가에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 홈스테이 가정이 있는 곳이 주택가여서 6시만 되어도 혼자 오래 걷는게 무서웠기에 집 앞까지 가는 버스를 탔고 늦어도 9시에는 귀가했다. 전반적으로 치안이 안좋다고 느끼지는 못했으나 차이나타운, 헤이스팅스 거리는 homeless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한다. 다운타운과 가깝기 때문에 이동할때 주의해야 한다.</p>
숙소	<p>캐나다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혹은 빌라 형태가 많았다. 단독 주택에는 반지하방이 있으며 홈스테이 학생, 패밀리가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 또한 반지하방에서 생활했다. 홈맘이 요즘에는 난방이 들어오는 주택들이 많다고 했으나 우리 집은 오래되어 히터를 사용했다. 첫 3일을 제외하고는 방이 따뜻해서 추위를 느끼지는 못했다.</p>
식사	<p>귀가를 일찍하다보니 홈패밀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었는데, 함께 식사하고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하는 경험이 좋았다. 중국의 새해를 기념하는 저녁 식사를 비롯해 다른 가족들도 불러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더 어울리는 문화라는 것을 느꼈다. 또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주택에서 생활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p>
교통	<p>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신기했던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한국과 달리 캐나다의 버스에서는 카드를 탈 때 한 번만 찍으면 된다. -하차벨도 있지만 창문을 따라 노란색 줄이 있고 살짝 잡아당기면 하차벨

	<p>과 같은 역할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sky tr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가 한국보다 작고 지상철의 느낌에 가깝다 -배차 간격이 2~3분이기에 놓쳐도 큰 영향이 없다 ▶ Sea bus, aqua b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일상에서 배를 탈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교통 수단이라는 것이 새로웠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음료 포함)	CAD 500\$	
쇼핑	CAD 500\$	기념품, 선물 등 구매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 어학연수: 비 옷, 워터프루프 신발/외투/상하의 꼭 준비해 갈 것! ▶ 수업 때 큰 바인더를 받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를 고려해서 짐을 적게 준비해 갈 것. (가서 기념품을 많이 사오고 싶다면 꼭 최소화하고 캐리어는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를 추천합니다) ▶ 현금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지만 불안하다면 10만원 정도가 충분하고 최대 20만원으로 가져갈 것을 추천합니다. <p>코스트코 밖 푸드코트는 상관이 없지만 내부로 들어가고 싶다면 마스터 카드를 꼭 챙기고 회원카드는 미리 알아보고 한국에서 준비를 해서 가거나 홈스테이 패밀리에게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카드가 있다면 트레블 월렛 카드와 함께해서 총 2개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비행기 좌석은 빨리 예약하기. 입출국시 모두 만석이어서 overbooking으로 자리가 랜덤 배정되거나 다음 비행기를 타야할 수도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친구는 프리이엄 이코노미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했지만 복불복이기 때문에 미리 원하는 자리를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부가 예민하다면 진드기 시트, 비오킬(천연살충제), 일회용 베개 커버 등을 준비하기

6. 본인 소감 및 평가

홈스테이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는데 캐나다에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언니(따님)와 취미가 같아서(음료 만들기, 요리) 저녁 먹은 후에 항상 티타임을 가지고 새해를 기념하여 떡국을 요리해서 같이 먹는 등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언니가 저와 같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현재 Daycare center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근무 중 가장 어려운 점, 오늘 있었던 일 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캐나다의 근무환경, 유아교육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스테이 가족 구성원 모두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셨고 안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요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가족들과 보드게임을 했던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식당, 카페, 기타 매장 등을 이동할때도 그렇고 지나가며 마주치는 행인들과 직접 부딪히며 영어를 사용해야했기에 저의 말하기 실력이 전보다 향상됨을 느꼈고 아직 더 보완해야할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여름의 캐나다도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점은 밴쿠버 공립도서관과 랑가라 컬리지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독서나 개인 공부를 해보지 못했다는 것인데 다음에 어학연수를 가는 친구들은 꼭 한 번쯤은 이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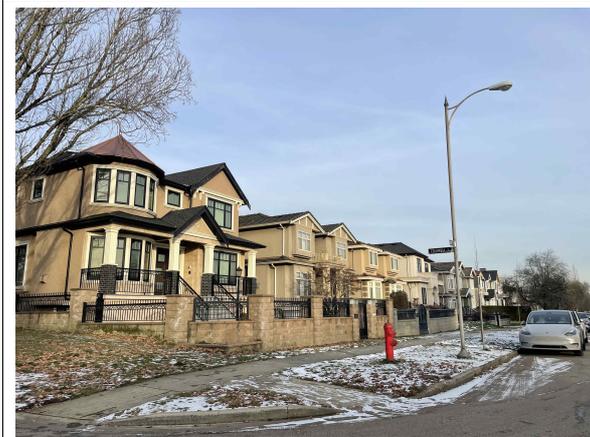
[전공 관련 활동]

너무 감사하게도 Langara college 안에 있는 daycare center 선생님들께서 참관을 허락해주셔서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어학 연수를 오기 전, 캐나다에서 추구하는 교육과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배우고 싶었는데, 약 2시간 가량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선생님들과 교실, 놀이터 등 주변 환경들을 관찰하고, 참관을 도와주신 선생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학 연수에서 만난 특수교육, 청소년 상담학과 친구와 동행하여 서로 메모한 것들도 공유함으로써 놓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지원한 두 가지의 목적 중 하나는 영어실력 키우기, 다른 하나는 전공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였는데 모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해외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싶다는 생각이 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운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것을 정리해보자면, 유아들의 자율성 존중, 환경 친화적인 공간 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은 한국과 공통된다고 느꼈고 캐나다에서는 교사의 권위보다는 친구같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한다는 것과 25명이 있는 교실에 5명의 선생님이 배치되어 곳곳에 위치해있는 작은 방, 큰 방들을 이용하며 지도한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 가족들이 보고싶다고 하는 유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가족사진을 구비해놓는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고 한국에 와서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캐나다에서의 첫번째 날, 산책하며 찍은 주택가



폭설로 인해 휴교된 날 집 앞 모습



컬링



위스키 아이스크림



Daycare center 참관 1
영유아 야외 놀이터



Daycare center 참관 2
6~7세 교실 내부



언니(따님)가 만들어준 음료수



캐나다에서 만든 떡국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 x x	학번	2021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기간	2024.01.14. ~ 2024.02.03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은 스카이 트레인 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통학과 수업 후 관광을 하는 데에 있어 편리했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생각보다 컸으며 전체적인 시설이 깔끔하고 사용하기가 쉬워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발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수업	수업은 평일 9시에서 15시까지 진행됐으며 중간에 한 시간의 점심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스피킹과 학생 참여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특히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서로 대화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다양한 주제와 활동으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은 하나로, 파견된 모든 학생이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시고 활동적이며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과제는 거의 없는 편이며 있는 과제 역시 쉬운 편이어서 부담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랑가라 대학에서 나누어주는 바인더와 필기구가 매 수업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때 꼭 챙겨가야 합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활동으로는 박물관과 아쿠아리움 방문, 컬링 체험 등 밖으로 나가서 하는 야외활동이 있었고 랑가라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부 활동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준비물이나 추가 비용은 없었으며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학교에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캐나다에 도착하고 며칠간은 맑았으나 이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의 매일 비가 계속 내려 날씨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안전	한국보다 치안이 좋다고는 느끼지 못했으나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는 사람과 항상 같이 다니고 길거리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피해서 다녀야 합니다.
숙소	홈스테이를 하면서 머무르게 됐던 집은 따뜻했고 모든 시설이 좋았습니다. 홈스테이 규칙으로는 통금과 씻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늦게 집에 도착할 것 같거나 저녁을 먹지 않을 시에는 연락을 달라는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식사	주로 홈스테이 가족이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거의 매일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질리지 않았습니다. 매번 건강식이 식사로 나와 음식을 먹으면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습니다.
교통	통학으로는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했던 교통 관련 OT만 들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 간편하고 한국과 비슷합니다. 버스와 스카이트레인 모두 제시간에 오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편리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140만원	쇼핑, 외식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만약 겨울에 밴쿠버로 파견을 가게 된다면 거의 매일 비가 내리기 때문에 꼭 우산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날씨는 그다지 춥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옷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수가 되는 신발과 겹옷을 챙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국 전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밴쿠버의 다운타운 내에는 한인마트도 있고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한식을 파는 곳도 있어서 한식을 먹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간식을 한국에서 가져오면 나중에 짐을 쌀 때 처리하기 힘든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 동안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계속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늘게 되었고 영어를 듣는 실력이 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단기 어학연수를 계기로 해외에 나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많이 들었고 나아가 해외에서의 거주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 새로웠고 이와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다면 꼭 참여할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그랜빌 아일랜드</p>	<p>증기시계</p>



밴쿠버 록아웃

킷살리노 비치

스탠리파크

캐나다 플레이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유 x x	학번	2021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은 내가 미국 드라마에서 본 듯한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았다. 층층마다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쉴 수 있는 장소들이 많았다. 학생들도 자유로워 보였고 교수와 학생들 간의 관계도 수직적이지 않아 보였다. 한국 대학과 다른 모습의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새로운 체험이었다.
수업	수업은 평일 주 5회 오전 수업으로 9-12시, 오후 수업으로 13-15시까지 진행되었다. 수업 안에서는 오직 영어만(ENGLISH ONLY) 사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이 덕분에 영어 스피킹의 기회가 다양해졌다. 수업은 1주차에는 캐나다의 문화, IDISOM 등을 배웠고, 2-3주차에는 다문화와 세계적 시민, 환경에 대해서 배웠다. 수업 후반부로 갈 수록 심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영어로 표현해야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 및 환경에 대한 주제를 영어로 의논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유익했다. 수업은 전체적으로 학생 참여형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내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짝을 지어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식으로 진행되어 모든 친구들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었다. activity와 관련된 활동을 선생님께서 재밌게 진행하시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셔서 모두가 주도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많지 않은 과제와 글쓰기가 있어 주말에도 영어 글쓰기 및 복습을 반복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 애정을 가지고 수업하셔서 집중하여 수업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Activity	Activity는 그랜빌아일랜드, 밴쿠버 박물관, 밴쿠버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브릿지 등을 방문했고, 컬링과 랑가라대학 학생들과의 만남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곳들을 수업 시간 내에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또한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활동들을 할 수 있어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다른 곳을 방문하면 학생들 스스로 돌아오게끔 하여 근처를 더 살펴보거나 다운타운에 접근성이 더욱 좋아져 관광하는데 효과적이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대체로 흐렸다. 겨울의 밴쿠버는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한다. 심지어 연수 시간동안에 폭설이 내려 학교가 이를 휴교되기도 했다. 날씨가 흐려 밴쿠버의 자연경관을 제대로 감상하는데 아쉬움이 컸다. 그리고 늘 우산을 챙기고 장화를 신어야만 했다.
안전	해외의 치안 문제를 걱정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꽤 안전했다. 치안도 좋은 편이라 생각되나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학교 주변과 홈스테이 주변도 다 안전한 편이었으나 다운타운이나 차이나타운에는 홈리스 사람들이 많아 그 거리는 최대한 피해 조심히 이동했다.
숙소	홈스테이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방과 화장실을 나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의 온돌이나 보일러 시스템이 없이 라디에이터가 있었는데 내가 켜고 끌 수 없어 매우 추웠다. 옷을 여러 겹 입고 담요를 3개 이상 덮고 자야했다.
식사	홈스테이 가족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준비해주셨다. 사실상 매일 홈스테이에서 식사를 한다면 개인적인 식사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다. 필리핀계 가족들이어서 필리핀 음식도 있어 초반엔 낯설었지만 빵, 샌드위치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주셨다. 모두 정성스럽고 훌륭했다.
교통	홈스테이하는 곳과 학교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어서 등하교하는데 매우 편리했다. 학교에서 compass card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교통비도 걱정없이 자유롭게 관광하고 이동할 수 있었다. 구글맵을 이용해 밴쿠버의 다양한 이동수단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500,000원	
빅토리아 페리 결제	39,185원	
하키 경기 예매	37,000원	
Fly over	35,000원	
그라우스 마운틴 곤돌라	33,000원	
합계	3,026,615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출국 전 환전 및 트레블월렛 카드 발급, 로밍 또는 ESIM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 파견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방수의 자켓과 신발, 단우산을 챙겨가야 할 것 같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옷과 신발이 쉽게 젖기 쉽다. 컬링 활동을 위해 운동화가 필요하므로 여분의 운동화가 필요하다. 현금을 사용할 시 동전의 종류가 다양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전지갑을 사용하거나 각 동전의 가치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평생 잊지 못할 3주였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움과 행복감이 가득한 하루 하루 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늘 외출했는데 유명한 랜드마크를 굳이 가지 않아도 밴쿠버 주민들의 생활과 주변 카페를 방문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3주동안 이나 해외에서 머무르는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현실이 아닌 꿈만 같은 추억이 되었다.

또한 함께 한 모든 학우들 15명 모두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토론형 수업과 팀별 활동 덕분에 모든 학우들과 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각 학우들마다 다른 전공, 다른 진로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유익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추진력과 사고방식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한 명 한명 자신의 진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고 그 모습들이 나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오래 이 인연을 유지하고 싶다.

교사를 준비하는 나에게 영어 수업의 선생님은 롤모델이 되었다. 늘 긍정적으로 학생들을 대하시며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시는 모습은 내가 교사로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올해부터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며 어려움이 닥쳐도 밴쿠버에서의 3주동안의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캐나다 단기어학연수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최대한 오래 간직하며 나 자신을 다잡고 버티고 나의 꿈을 향해 가는 원동력으로 이 기억들을 활용하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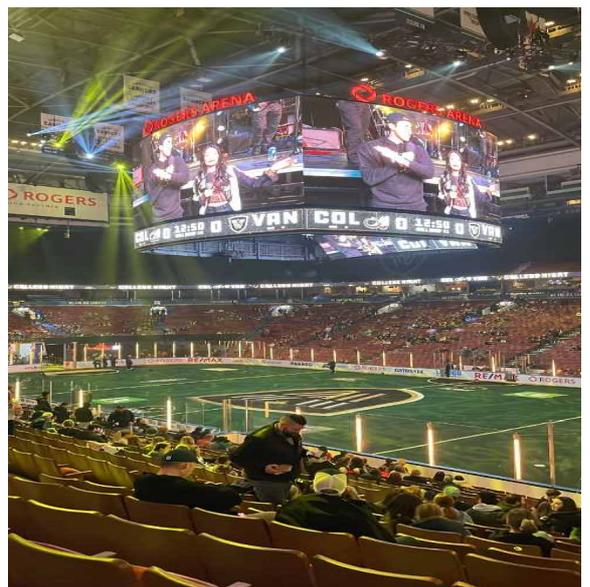
빅토리아



가스타운 증기시계



랑가라 대학



하키 경기



스탠리파크



캐필라노 브릿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윤 x x	학번	2021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4.01.14.~2024.02.0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ege는 우리가 수업 듣는 건물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스카이트레인 역이 있어 등하교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팀홀튼, 서브웨이등 카페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있고, 멋진 도서관이 있어 수업 시작 전 조금 일찍 나와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업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까지 오전수업 후, 1시간 점심시간을 갖고 3시까지 오후수업을 진행했고, 어학연수 가게 된 15명이 한 반이 되어 3주동안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과제는 거의 매일 있었지만, 금방 끝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 부담은 없었고 Activity가 있는 날은 미션 수행하는 느낌으로의 과제를 주셔서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수업은 거의 회화 위주였습니다. classmate나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영어로 대화하며 수업 주제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교류하고 게임, 발표 등 활동적인 수업해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선생님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수업에 대한 열정이 넘치셔서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교재는 첫 수업 때 나눠주시는데 조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nville Island - Curling - museum of vancouver - 랑가라 대학 친구들과의 대화활동 - Aquarium - 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 -계속 비가 왔다 그쳤다 하기 때문에 방수되는 걸옷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별명이 raincouver답게 2일차 이후에 온 폭설로 휴교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비가 왔다 그쳤다가 반복해서 날씨 좋은 날은 비가 안 오는 날이 될 정도였습니다. 우산은 필수고 장화나 방수되는 옷, 신발을 꼭 챙겨가세요.
안전	한국의 겨울과 비슷하게 5시 이후부터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도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그것보단 길거리에 홈리스들과 마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칠 때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은 되도록 가지 마시고 한국의 밤만큼 밝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은 귀가는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숙소	홈스테이에서 생활했는데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셨습니다. 사생활을 지켜주시고, 저녁시간에 같이 밥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봐주시고 지켜야 할 샤워규칙도 많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캐나다 가기 전 샤워규칙이나 궁금한 점은 메일로 미리 연락해서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이나 드라이기 여부 등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는 점심 도시락이나 저녁 등 정성 담아 준비해주시고 버스 파업했을 때 학교로 데려다주셨을 정도로 친절한 가족분들과 지내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식사	점심은 도시락 샌드위치를 먹었고, 저녁은 거의 밖에서 먹었습니다.
교통	학교까지 40분 정도 걸렸고 20번과 49번 버스 2대를 타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금방 익숙해졌고, 밴쿠버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transit 앱과 구글맵 추천드립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트레블월렛	650\$	식비, 기념품, 페리, 곤돌라, 각종 예약비
현금	200\$	식비, 기념품, 교통비

esim	50000원	로깨비(데이터무제한15일+7일)
합계	3,802,43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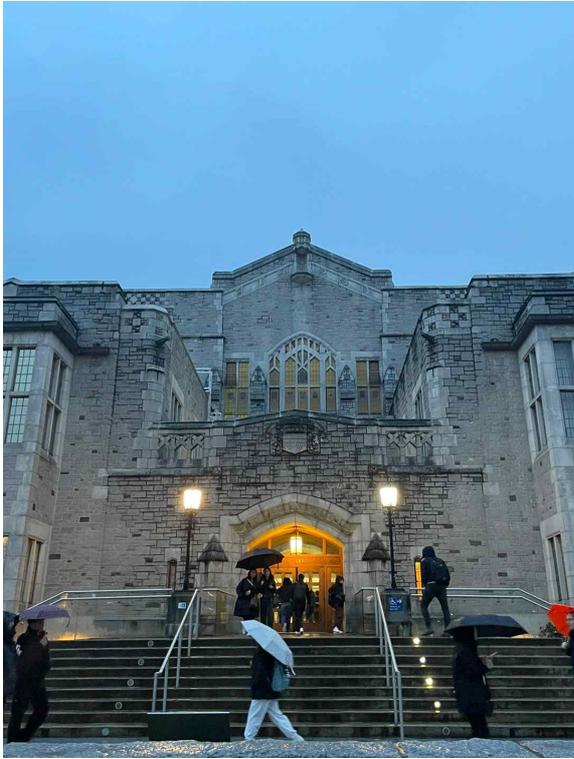
- esim을 하루 1기가로 하고 다 쓰면 느린 데이터로 무제한 쓸 수 있는 걸 선택했는데 걱정과 달리 1기가도 충분했습니다. 사용량을 알 수 있는 '로깨비'를 추천합니다.
- 캐리어는 큰 거 하나랑 기내용 캐리어 하나, 그리고 작은 가방을 챙겨갔는데 딱 적당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짐 싸기 걱정인 분들은 꼭 캐리어 2개 가져가는 걸 추천합니다.
-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면서 잘 가져갔다 싶은 물건은 실내화(나무바닥이여서), 휴족시간, 종아리압박밴드등 피로를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노트북은 저녁에 좀 미팅이 주마다 있어서 잘 가져왔다 생각하지만, 학교 수업 중 필요한 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노트북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 학교 자판기에 파는 물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텀블러를 챙겨오는 걸 추천합니다.
- 밴쿠버 겨울은 비가 많이 오고 만약 눈이 온다 하면 많이 와서 신발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방수되는 부츠나, 장화를 가져오는 걸 강추합니다.
- 현금은 필요한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20만원정도 환전해서 갔지만, 10~15만원 정도 환전하는 걸 추천합니다.
- 한국음식이 생각날까봐 컵라면을 몇 개 챙겨갔는데, 저 같은 경우 거의 매일 밖에서 저녁을 먹었고 생각보다 잘 맞아서 컵라면을 다 먹지 못하고 집에 두고 왔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눈으로 인해 휴교하고, 버스파업으로 아쉬운 하루를 보내고, 매일 비가 내렸던 기간에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되어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 요소들이 즐거웠던 경험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 다. 운 좋게 날씨 좋은 날에 빅토리아 여행하고, 그라운드스 마운틴에서 밴쿠버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빗속에서 다같이 웃으며 스케이트를 탔고, 웅장했던 라크로스 경기 관람, 컬링, 안개 속 더욱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캐필라노 현수교 등등 좋은 추억들을 너무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 가기 전 맛집과 카페 정도만 저장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가서도 충분히 계획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시간은 있었습니다. 3주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으니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전날이라도 알찬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수업을 우리학교 학생들과 들어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서, 공원 산책하며 만난 사람,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스물뚱을 하며 지냈고, 그 속에서 밴쿠버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피킹 실력은 많이 향상된 것 같지는 않지만, 리스닝 실력은 조금 향상되는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 60%만 알아들었다면, 끝에는 80%정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스스로도 신기했던 경험이었고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뭔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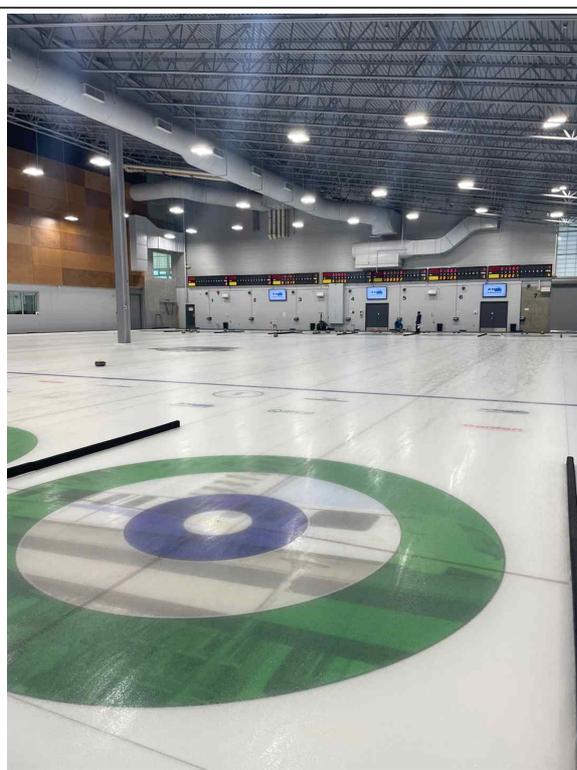
쫓기는 느낌에 부담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다가 밴쿠버에서 3주동안 다 내려놓고 천천히 여유를 느끼며 생활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서 뜻깊었고 대학교 생활 중 하길 잘했다는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서 배운 영어 실력을 좀 더 향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전보다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익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 점수를 올리고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며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Downtown</p>	<p>UBC</p>



Vancouver public library



Curling



Victoria Island



Granville Island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 x x	학번	2022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	기간	2024.01.14. ~ 2024.02.0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은 A동, B동, C동 도서관 건물이 있고 내부에 서브웨이 스타벅스 팀 홀튼 프렌차이즈 매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A동에서 수업을 들었고 점심은 A동 1층 카페테리아나 도서관 건물 서브웨이 옆(여기에는 온수나오는 정수기가 있음)에서 주로 먹었습니다.
수업	오전 수업은 9시부터 12시로 3시간 수업이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수업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수업했습니다. 문법이나 단어 뜻을 설명하실 때를 제외하면 활동 위주 수업이라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눈이 와서 이틀 휴교했을 때는 하루 2시간 정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고 남은 시간은 3일 동안 5시까지 수업했습니다.
Activity	보통 월수금에는 오후에 야외활동을 나갔습니다. 아쿠아리움이나 카필라노 현수교, 컬링을 배우러 가기도 하고 밴쿠버 뮤지엄도 갔습니다. 캐필라노현수교를 제외하면 모두 현장학습 후 거기서 해산할지 선생님과 학교로 돌아갈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항상 거기서 해산해서 주변 관광지를 구경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3주동안 햇빛이 쨍쨍한 날을 2일 봤습니다. 겨울의 밴쿠버는 날씨를 기대하면 안됩니다. 그치만 비와도 비오는대로 재밌어요. 접이식 우산으로 챙겨서 가방에 챙겨 다니시면 됩니다.
안전	이스트 헤이스팅스 거리에 홈리스와 드러그들이 길에 정말 많았고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외관상 무서워요. 이스트 헤이스팅스 거리를 제외하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치만 어디든 항상 주위를 살피고 신경을 세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숙소	저는 홈스테이를 정말 잘 만나서 0.5층을 제가 쓰고 호스트 가족들이 1.5층을 쓰는 구조였고 0.5층에는 침실(퀸사이즈 침대, 불박이장, 책상, 의자, 서랍장), 화장실, 작은 주방(전자레인지, 커피포트)이 있었고 다 혼자 사용했습니다.
식사	호스트 가족들이 포르투갈계 사람들이셔서 포르투갈 음식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 음식처럼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쉽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스를 계속 먹을걸 아시고 아침마다 밥솥에 밥을 해주셨어요.
교통	대중교통이 이틀인가 정도 파업을 했어요. 눈와서 휴교하고 파업해서 학교가기 어려워진 애들은 우리가 처음이래요. 리얼 캐나다인 체험했습니다. 저희 홈맘은 파업날 등하교 모두 태워주셨어요. 친구들은 못태워주거나 걸어서 못 가면 랑가라 측에서 태워주시거나 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비용(카페, 식사)	CAD 466\$	
액티비티(입장권, 렌탈 등)	CAD 200\$	그라우스 마운틴, 플라잉오버, 라크로스경기 입장권 등
기념품쇼핑	CAD 57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겨울에 가신다면 밴쿠버의 또 다른 별명이 레인쿠버이니 꼭 방수가 되는 신발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없다면 가서 월마트 같은 곳에서 저렴한거 하나 사서 신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서 인터넷에서 2만원짜리 사서 들고가서 신고 버리고 왔는데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날씨 때문에 여름에 올걸하는 후회가 많이 됐는데 타과 친구들과 친해지고 학교 수업도 익숙해지면서 날씨가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적응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과 특성상 타과를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적이 없었는데 량가라를 통해서 순천향으로 교환학생 올 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주동안 영어 듣기 실력은 향상 되었다고 느끼고 말하기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저는 꼭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캐나다 플레이스



캐필라노 현수교



벤쿠버 아쿠아리움

어니스트 아이스크림(강추)



랑가라 학교에서



학교 수업 중 발표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 x x	학번	2022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기간	24/1/14~24/2/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수업	<p>첫주차: 밴쿠버와 캐나다 알아갔다. 영어 idiom 표현과 캐나다에서만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웠다. 예를들어 Toque, Canadian tuxedo 등 홈스테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홈스테이할 때 지켜야하는 수칙들, 홈스테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배웠다. 첫주차에 폭설로 인해 수업이 이틀연속 취소되었다.</p> <p>이주차, 삼주차:활동이 있는 날에는 오전수업은 보통 그 활동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받았다. 활동 다음날에는 미션 수행한 것들로 퀴즈를 진행했다. 문법과 발음도 배웠다. 현재완료, 가정법 등 평소 어려웠던 문법을 영어 문장에 적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주셨다. 이주차에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다. 교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축제나 의식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것에대해 토론을 하는 형식이였다. 발표수업도 있는데, 발표하는 방식을 미리 먼저 배웠다. 캐나다와 한국의 문화차이를 소개하는 것이 발표주제다. 삼주차는 글로벌 시민이 수업주제였다. 글로벌 시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도록 하게 하셨다. material economy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과정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조원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주차 발표 수업에서, 우리조는 awareness campaign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기르는 캠페인을 만들고 시행계획을 세웠다.</p> <p>수업에서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랜덤으로 조를 짜주시고 영어로 대화하도록 하게 하셨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도 많이 그리고 몸으로 말해요와 같은 쉬운 활동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p> <p>발표에서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셨고 영어 발음과 억양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다. 문법도 쉽게 설명해주셨고 생소한 영어 관용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p>

	<p>숙제는 한 주마다 있었던 일과 주제 하나를 정해서 저널을 작성하는 것이었다.</p>
<p>Activity</p>	<p>그랜빌 아일랜드: 제시된 장소에서 팀원들과 사진을 찍고, 3명과 인터뷰를 하는 미션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퍼블릭마켓에서 처음보는 과일과 야채를 찾아봐야한다. 이런 미션을 주니까 더 꼼꼼하게 그랜빌 아일랜드를 구경할 수 있다. 3시 이후 자유시간에 퍼블릭 마켓에서 'clam chowder hot pie'를 먹는 것을 추천한다.</p> <p>컬링 배우기: 전문가에게 컬링을 배우고 팀원들과 경기를 했다. 조금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가는 것을 추천한다. 상당히 힘들고 다음날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p> <p>밴쿠버 박물관: 이곳에서도 사진을 찍는 미션이 있다. 캐나다의 역사에 관한 박물관이고 재밌는 포토스팟이 많았다. 역사 외에도 우주 전시관도 있다. 밴쿠버 박물관을 다보면 걸어서 몇분 안되는 거리에 키칠라노 해변이 있다. 구경하는 것을 추천한다.</p> <p>랑가라 컬리지 학생들과의 만남: 오전 수업에 학생들에게 할 질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어색할 걱정은 안해도 된다. 학생분들도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사나 공통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순천향대로 교환학생 오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팁을 이야기해줄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재밌는 표현들을 서로 알려주는 것도 재밌었다.</p> <p>아쿠아리움: 여기서도 사진 미션이 있다. 캐나다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물개나 해달이 인기가 많았다. 4D 영상관도 있고 해양 생물을 만져볼 수 있는 전시관도 있어서 즐길 거리가 많다. 스탠리 파크 안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아쿠아리움 활동이 끝나면 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정말 추천한다.</p> <p>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캐나다 숲을 구경할 수 있다. 한국과는 다른 자연환경으로, 매우 웅장하고 거대하다. 직원분의 설명을 듣거나 절벽을 걸어볼 수 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캐나다 겨울은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눈보다는 비가 매우 자주온다. 눈은 딱 2일간 폭설이 왔는데, 무릎까지 쌓였고 이로인해 휴교할 정도 였다. 매일 비가 와서 우산과 방수 제품은 필수다. 온도는 한국보다는 따뜻한 것 같다.
안전	내가 머문 홈스테이 주변은 정말 안전했다. 하지만 다운타운의 Hastings 거리는 매우 위험하다. 드러거들과 노숙자들이 많다. 밤에는 정말 무서우니까 조심해야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한국과는 다르게 짐은 무조건 자리에 두지 않고 가지고 다녀야한다.
숙소	나의 숙소는 라디에이터를 사용해서 기계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추웠다. 이불을 2겹으로 사용했다. 따뜻한 잠옷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헤어드라이어, 수건이 다 있었지만 샴푸, 바디워시는 개인적으로 가져가야한다. 가족들이 많아서 화장실 사용이 아침에 조금 힘들었다. 숙소에 없는 것들과 숙소 규칙에 대해서 사전에 이메일로 홈맘과 연락하는게 좋은 것 같다.
식사	아침은 숙소에서 시리얼이나 토스트, 과일, 요거트를 먹고 점심은 홈맘이 싸주신 도시락을 먹는다. 대부분 샌드위치와 간식들을 싸주신다. 이걸로 식비를 매우 아낄 수 있었다. 저녁은 외식을 하거나 가끔은 숙소에서 먹었다. 홈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가족분들이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신다. 우리 숙소의 경우는 멕시코음식이나 피자, 파스타, 샐러드를 주로 먹었다. 외식을 많이 했는데, cactus club cafe와 Bin4 burger를 매우 추천한다. 한국에 와서도 생각나는 식당이다. 그리고 Earnest ice cream은 꼭 먹어봐야한다. 솔티드 카라멜맛이 정말 맛있다.
교통	학교를 갈때 49번 버스를 타거나 걸어갔다. 다운타운은 학교에서 바로 가면 스카이 트레인을 타는게 빠르다. 다운타운에서 올 때는 20번 버스를 주로 탔는데, Hastings 거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밤에는 조심해야한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와 쇼핑	약 CAD 1300\$	쇼핑비용 절반 추정

합계	약 42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비행기 자리 예약 먼저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오버부킹돼서 다른 비행기를 탈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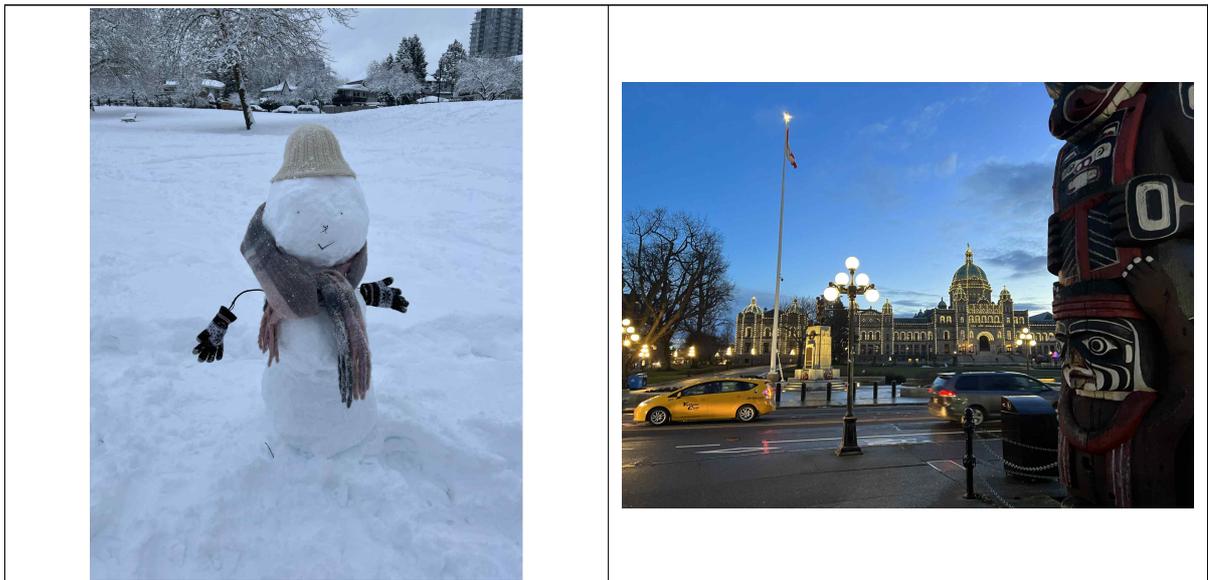
팁문화, 식당 예절을 알아가는 것이 좋다. 홈맘과 한국에서 미리 연락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나는 연락을 안하고 가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져갔다. 겨울 단기 어학연수라면 방수용품과 폭설 대비 용품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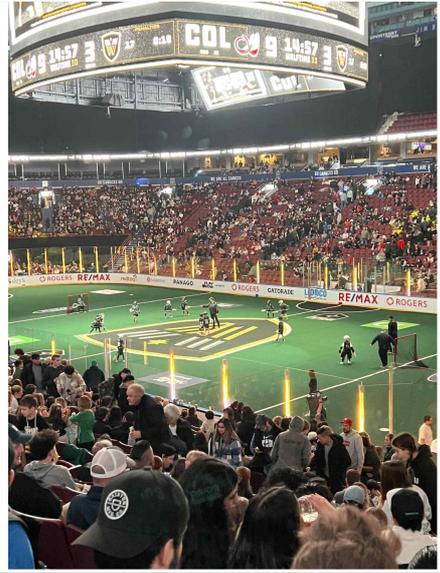
현금보다는 트래블로그를 많이 사용했다. 안전하게 출국 2주전에 카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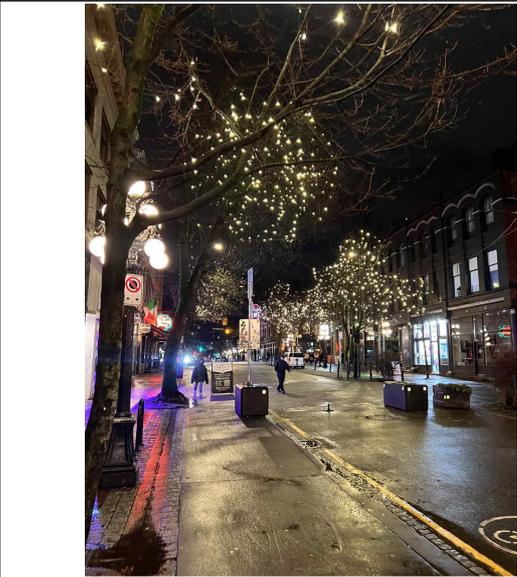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되지만 인생에서 잊지못할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의 문화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활동도 즐길 수 있어서 식견과 시야를 넓혔다. 또한 외국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씩씩하게 살아본 경험은 인생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양 x x	학번	2022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	기간	01/14~02/03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캐나다의 100 W 49th Ave, Vancouver, BC V5Y 2Z6에 위치한 랑가라 대학에 파견되었으며, 건물들 중 주로 A건물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학생식당, 기념품 및 학용품점, 카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여가시설이 많아 수업 외적인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업	<p>주말을 제외한 모든 날에 수업받으며 기본적으로 09:00~15:00까지의 수업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내용은 주로 언어, 문화, 지구촌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며, 언어 중 속어 관련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 문법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기는 하나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수업은 2~5인의 조 활동이 주축이 되어 돌아가며, 토론 비중이 많습니다.</p> <p>수업 중, 동영상의 속도가 빠르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 등 수업에 대한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공원, 박물관 등 외부시설을 오후에 방문합니다. 이동은 스쿨버스를 사용하며 해당 지점에서 보통은 15:00에 해당 지점에서 수업을 끝내고 귀가는 각자 합니다. 대학으로 다시 복귀하고 싶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복귀할 수 있습니다.</p>
Activity	밴쿠버의 다양한 시설들을 방문할 수 있으며 컬링 등의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업 내에서도 토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얇은 비가 자주 옵니다. 햇빛이 바로 보이는 날이 적으며 비가 오지 않더라도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겨울에 습한 편이라 손 등이 트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안전	대부분의 경우, 혼자 밤 늦게까지 걸어나다니더라도 위험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버스 안에서 현지인이 가지말라고 하는 장소를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곳에 가는 것을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숙소	홈스테이를 통하여 거주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15~20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홈스테이 가정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오랜 시간 대화할 기회를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식사	음식과 관련하여 가격 외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기에 골라먹을 수 있으며, 익숙한 음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	기상악화, 파업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여도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구글지도를 이용하면 버스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 편리하였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1,500,000	
기념품	300,000	
차, 과자 등 선물품	200,000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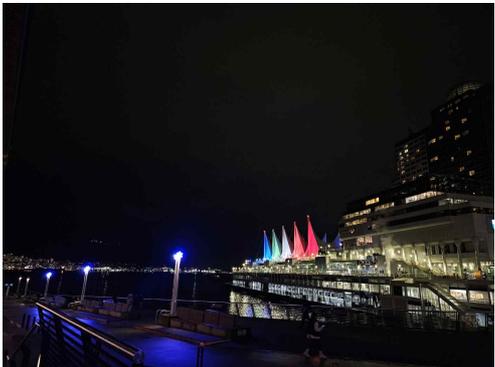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노트북이 있으시다면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제, ppt만들기 등에 필요할 수 있
 습니다. 수건 또한 홈스테이에서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현금만 받는 곳들 또한 적지않게 존재하기에 현금을 어느정도 챙겨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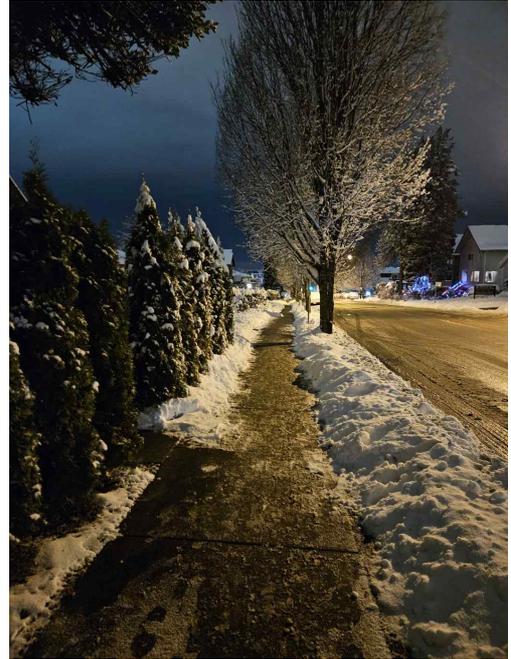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굉장히 가치있는 경험이었고 저의 인생계획에 대하여 다시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
 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캐필라노 현수교</p>	<p>노스 캐나다</p>
	
<p>캐나다 플레이스</p>	<p>스탠리 공원</p>



시티 스퀘어 쇼핑센터



거리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양 x x	학번	2022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4-01-14~2024-02-03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100 W 49 th Ave, Vancouver, BC Y5Y 2Z6 캐나다에 위치해있습니다. 버스 나 skytrain staition이 학교 근처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수업	1주차 (English Essentials) A to Z of "Canadian" Words라 하여 캐나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 배웁니다. 기본적인 문법도 배우고 홈스테이 규칙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첫 주차에 폭설로 인해 수업을 많이 하지 않아 기억에 남는 게 크게 없습니다... 2주차 (Cultural Studies)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캐나다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배웁니다. 캐나다와 한국 문화를 비교해서 발표하는 수업도 진행합니다. 3주차 (Global Citizenship) 세계적 시민의식에 대해 배웁니다. Global Citizenship을 갖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를 공유하고, 팀별 presentation도 있습니다. -> 매주 idiom에 대해 배우고 문법 수업이 있습니다.
Activity	1주차 (Granville Island) 캐나다 현지 마켓이 있는 곳입니다. 귀여운 소품샵도 많고, 유명한 Lee;L donut이 위치해있습니다. stranger 5인과 인터뷰하기 등과 같은 활동이 있는데, 외국인과의 대화한다고 크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만 하면 됩니다.)

	<p>2주차 (Curling, Museum of Vancouver)</p> <p>퀸 엘리자벳 공원에 있는 컬링장에 가서 컬링을 배웁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막상 하다보니 정말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었습니다. 컬링의 기초에 대해 배우고, 30분 동안 컬링 경기를 진행합니다.</p> <p>밴쿠버 뮤지엄은 yellow school bus를 타고 갑니다. 밴쿠버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키칠라노 비치와 가까우니 가는 길에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3주차 (Vancouver Aquarium, Capilano Suspension Bridge)</p> <p>밴쿠버 아쿠아리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D 상영관, 만져보기 체험, 물개쇼 등이 있으니 시간을 잘 확인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쿠아리움의 크기는 한국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해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스탠리 파크에 위치해 있어 끝나고 스탠리 파크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밴쿠버 뮤지엄과 마찬가지로 yellow school bus를 타고 이동했습니다.</p> <p>카필라노 현수교도 yellow school bus를 타고 이동합니다. North Vancouver에 위치해 있습니다. Capilano park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분위기의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말로만 듣던 rain cover입니다. 도착한 날과 그 다음날을 제외하고 거의 비만 온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는 편이라 비 오는 게 상관 없긴 하지만 아름다운 캐나다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면 여름에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	제가 머문 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sky train을 타고 통학했기 때문에 homeless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간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에 Hastings street을 지나갈 때 Homeless들과 얽힐 수도 있다고 하여 이 거리를 지나치지 않으며 안전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파견 전에 선생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안내해주시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소	정말 좋았습니다. 3명의 다른 룸메이트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방도 개인 방이었기에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홈스테이에서 아침과 점심, 저녁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아침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먹으면 됐었고, 점심은 home mom이 전날 먹은 저녁을 점심으로 싸주셨습니다. 저녁은 kitchen에서 친구들과 다같이 먹었고, 외

	식하고 싶은 날에는 미리 연락을 드리고 밖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교통	편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하철도 단순하고 자주 와서 downtown이나 metro town에 가기 편했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대중교통으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zone 계산만 잘하시면 정해진 비용 내에서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비용	1,649,381원	외식비, 기념품비, 관광
합계	4,554,511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에 반드시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홈스테이 가족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그 파일에 나와있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는 home mom이 약 2주 동안 메일을 안 읽으셔서 다시 보냈는데 확인해주셨습니다. 메일로 가져가야 할 것, 기후, 규칙 등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p> <p>트레블 월렛이나 트레블로그 카드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VISA나 MATER CARD도 좋지만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캐나다는 Tax가 많이 나오기에 추가적인 수수료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레블 월렛 카드를 가져가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충전해서 사용했습니다.</p> <p>상비약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은 3주치 병원 약을 처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져가지 않았는데, 가서 감기에 걸리고 장염에 걸려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p> <p>겨울에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장화를 구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캐나다에서도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 알아보러 다니기가 살짝 귀찮거든요.. 저는 와서 비싼 부츠를 하나 장만했는데, 한국에서 미리 사오시면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겁니다!!</p>

6. 본인 소감 및 평가

너무 힘들고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간 시기에 폭설과 버스 파업을 겪어 학교를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현지인들에게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여 평생 기억할 것 같지만 당시 저는 정말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쇼핑하러 들어가거나 음식점을 들어가면 'Hello~ How are you?' 하며 말을 걸어주시는데, 정말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빈말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하루를 물어봐주는 것이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홈메이트가 직업을 구하는 과정도 함께 겪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store 하나 하나 들어가서 고용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이력서를 건내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지 않는데, 앞으로 일을 구할 때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닥부터 차근차근 헤쳐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밴쿠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갈 수 없기에 졸업을 하고 다시 캐나다에 가서 어학연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업 후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졸업을 하기 전까지 어학 공부와 알바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교환학생도 추천드립니다!

rain couver와 빠른 일몰 시간으로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정말 좋았던 밴쿠버였습니다.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밴쿠버를 더 좋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단기 어학연수는 앞으로 제가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주었고,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며 제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후회하지 않으니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Granville Island	Curling centre

UBC	Capilano Suspension Bridge
Vancouver Aquarium	Grouse Mountain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 x x	학번	2022 x x x x
파견국가	Canada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4.1.14~23.2.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밴쿠버에 있는 랑가라 컬리지에 파견되었습니다. 랑가라 컬리지는 랑가라역(스카이트레인 역)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여 등하교 및 방과 후 이동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굉장히 편리하고 멋지게 구성되어있어 정말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이었습니다.
수업	담당 교사 한 분과 함께 모든 수업 및 현장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과 동시에 English Only 정책에 의해 교내 모든 대화는 영어로만 진행해야 했습니다. 동계 어학연수반 담당 선생님께서는 어렵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천천히 해 주셔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업 내용으로는 특정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 주도형 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에는 영어 수업 비중이 커 영어 회화, 단어, 문법 등에 대해 활동 형식으로 학습하고, 오후 수업에는 매 주차의 주된 주제(캐나다 문화, 문화적 다양성, 국제 시민)를 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 토의, 발표했습니다. 학생 주도형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의 적극성과 참여 의지가 매우 중요했고, 모든 활동에서 같은 반 학우들과 협업해야 하므로 반의 팀워크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포스터 발표회' 수업이었는데, 학생끼리 조를 꾸려 원하는 주제에 대해 박람회처럼 포스터를 구성하여 발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우들과 더 친해지고 영어로 발표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서 가장 인상 깊고 좋았던 수업이었습니다.
Activity	현장 체험활동으로 담당 교사와 학우들과 함께 밴쿠버의 주요 관광지를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반이 방문한 곳은 Grandville Island, Museum of Vancouver, Vancouver aquarium, Capilano suspension bridge, curling center 등이었습니다. 각 관광지에서는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동계 파견 반은 컬링 센터에 가서 컬링을 배울 수 있었는데, 학우들과 즐기는 컬링이 너

	<p>무 재밌어서 모두가 컬링 데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견학뿐만 아니라 랑가라 대학 재학생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날을 통해 저희 학생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의 밴쿠버는 우기라고 합니다. 파견된 3주 동안 딱 이틀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때론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방수가 되는 신발, 접이식 작은 우산은 필수품이며 추가로 현지에서 방수 겹옷을 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안전	다운타운의 특정 구역만 제외하면 혼자 돌아다니기에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동 시 조심해야 할 구역은 오리엔테이션 중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기에 잘 듣고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 길거리에 마약 투약자, 노숙자가 있지만, 행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가지 않거나, 대중교통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는 등 분실사고에 대비하여 늘 귀중품 관리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숙소	제가 머문 홈스테이 가정은 저를 위해 지하실 손님방, 여분 욕실을 내어 주셔서 완전히 제 몫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라이기, 세면용품 등도 미리 준비해주셔서 따로 한국에서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따로 없었으며 대신 늦은 시간에는 샤워하지 않고 제가 사용한 식기는 제가 설거지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식사	저희 집은 4인 모두 캐나다인인 가족으로 주로 베이글, 샌드위치, 파스타를 주식으로 먹었으며 가끔 볶음밥이나 만두 등 중국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는 left over 문화가 있어 남은 집밥을 다음 날 점심 식사로 가져가는데, 상술한 대로 홈스테이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주셨지만 저는 통학 시간 때문에 아침은 주로 거르고 점심은 학교 매점에서 간단히 때웠으며 저녁은 다운타운 등에서 외식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식문화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서 파견 시 햇반, 컵라면 등을 꼭 가져가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혹은 현지 한인 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즉석 국을 가져갔는데 감기에 들었을 때나 속이 안 좋을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교통	캐나다의 대중교통은 매우 간단하고 편리했습니다. 체감상 한국과 거의 같은 시스템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은 3개 노선으로 구성되어있고, 버스 노선은 한국처럼 다양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교통카드로 한 달간 버스,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요금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했

습니다. 중 대중교통 파업이 있어 지하철을 사흘간 이용할 수 없었지만, 버스 노선이 다양하고 홈스테이 가정에서도 도와주셨기에 특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용돈(카드)	CAD 1,200\$	
용돈(현금)	CAD 500\$	
합계	4,602,430원	1\$ = 1,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 밴쿠버도 한국처럼 대부분 매장에서 키오스크,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트래블월렛 카드는 현금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밴쿠버로 가져가는 용돈 비율에서 현금보다 카드 잔액의 비율을 늘려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교 매점의 카드 리더기가 고장 났을 때 빼고는 현금을 반드시 써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 세면도구, 드라이어, 수건 등을 숙소에서 제공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으니 파견 전에 반드시 머물 가정의 구성원과 연락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짐을 꾸려야 합니다.
- 동계 파견이라면 수면 잠옷 상의를 한 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날씨에 적응할 때 원래 잠옷 위에 껴입고 자면 춥지 않게 잘 수 있습니다.
- 동계 파견이라면 방수가 되는 신발, 접이식 작은 우산은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 경험담
- 순천향대학교 선생님들의 오리엔테이션 및 랑가라 대학의 안전교육 모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늘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운타운에 거의 매일 놀러 갔는데 항상 길거리의 마약 투약자나 노숙자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특히 조심했습니다.
 - 밴쿠버에서 핸드폰을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버스에서 떨어뜨렸는데 시민분의 제보를 통해 기적적으로 귀국 1일 전에 lost&found 사무소를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랑가라 대학 담당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매 그룹마다 분실물 사건이 꼭 한번은 발생한다고 하셨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히 귀중품 관리에 더 신경 써서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귀국 시 캐리어의 무게가 초과할 수 있는데, 저는 귀국 하루 전에 약 7kg의 짐을 한국으로 미리 보내기 위해 모 유학원에서 운영하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만약 현지에서 쇼핑을 많이 했다면 귀국 며칠 전에 미리 짐을 정리해보고 초과하는 짐은 택배를 통해 정리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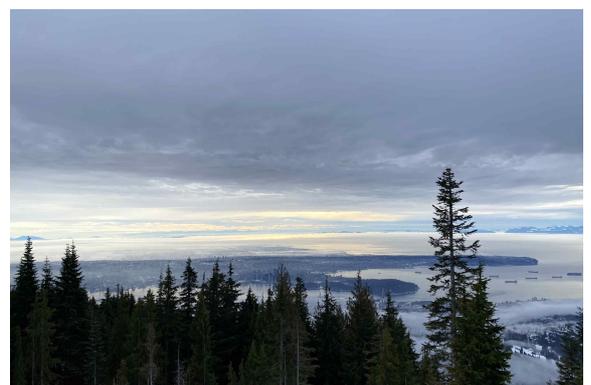
느낀 점

캐나다와 밴쿠버에 가보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처의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의 지원을 통해 밴쿠버에 3주간 단기 어학연수를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도 마음이 맞는 분들과 잘 만나서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즐거운 밴쿠버 어학연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맞는 홈스테이 가족이 있다고 해도 타지에서 3주간 홀로 생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생활 습관과 식문화에 맞춰 적응해나가는 것은 어려웠으며 때론 미숙한 영어 실력으로 인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밴쿠버의 겨울은 늘 비가 오고 해가 정말 빨리 저서 다양한 것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상상과는 사뭇 다른 겨울의 밴쿠버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오로지 제 의지와 힘에 의지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반 친구들과 순천향대학교 그리고 랑가라 대학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 밴쿠버에서 삼 주 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끝나고 어니스트 아이스크림에 가서 다 같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날들과 캐필라노 브릿지에서 담당 선생님, 친구들과 다 함께 신나게 사진을 찍은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어학연수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밴쿠버에 이례적인(!) 폭설이 온 날, 집 앞에서 가족들과 눈썰매를 탔어요



친구들과 함께 간 그라우스 마운틴, 정상에서 밴쿠버 도심을 한눈에 보다



우리 팀이 정성껏 만든 발표 포스터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휘슬러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 x x	학번	2022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1.14~2.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학교는 밴쿠버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캠퍼스가 크지는 않지만 학교 안에 팀홀튼과 스타벅스 같은 카페들과 도서관, 기념품 샵, 카페테리아 등이 있어 좋았고, 화장실 칸이 넓고 청결한 편입니다.</p> <p>화장실은 대부분 자동 수도꼭지였고 다이슨 핸드 드라이기가 있어 손을 씻고 말리는 재미도 있었습니다.</p> <p>교내 쓰레기통은 많이 비치되어 있고 쓰레기통은 네 종류로 구분되어 있어 재활용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p> <p>근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등하교는 쉬운 편이었습니다.</p> <p>또한 지하철이 다운타운까지 한 번에 가기 때문에 하교 후 변화가에 놀러가기 좋았습니다.</p>
수업	<p>여름 방학 파견과는 다르게 순천향 학생들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따로 레벨테스트를 하거나 분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p> <p>수업은 오전 수업 9~12시, 오후 수업 1~3시로 진행했지만, 중간에 휴교를 했기 때문에 보강으로 오후수업을 1~5시 까지 했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3명 씩 또는 5명 씩 조를 만들어 각 조마다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다른 조원들과 다시 조를 만들어 그 내용을 다시 공유하는 방식이었고, 가끔 퀴즈나 몸을 활용하는 활동들을 해서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p> <p>수업 중 두 번 발표 수업이 있었고, 첫 번째 발표는 학교에서 발표 자료를 다 만들었지만 두 번째 발표는 집에서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p> <p>월, 수, 금은 대부분 오전 수업 후 액티비티 활동을 했고 화, 목은 오후 수업이 진행 되었습니다.</p> <p>과제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영어 일기를 쓰는 것과 액티비티 활동을</p>

	<p>할 때 마다 사진 제출 같은 간단한 과제들을 내주셨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는 아니여서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p> <p>마지막 날에는 Closing celemony를 진행하기 위해 전날 간단한 노래 연습을 하였습니다.</p>
Activity	<p>1주차엔 그린빌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과제로 사진 속 장소에서 셀카 찍기가 있어서 관광보다는 과제를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규 액티비티 시간이 끝난 후 남아서 더 둘러보았는데 마켓의 분위기도 좋고, 상점들이 관광지답지 않게 가격이 괜찮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고 볼 것도 많아 한 번 더 방문한 곳입니다.</p> <p>2주차엔 퀸 엘리자베스 공원 옆에 있는 컬링장에 방문해 컬링을 했습니다. 설명도 재밌게 해주시고 컬링도 재밌어서 캐나다 사람들이 컬링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컬링장 옆엔 수영장도 있었는데, 여름에 파견가시는 분이라면 수영복을 챙겨 꼭 방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밴쿠버 박물관도 방문했는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많아 보조배터리와 예쁜 옷을 입고가시면 박물관을 200%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랑가라 컬리지에서 공부중인 학생들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 중엔 한국계 캐나다인, 일본인 등 여러 인종의 학생들이 있었고, 이번 1학기에 순천향으로 교환학생을 올 학생들도 있어서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이드를 오전 수업 시간에 정리해 말해주는 활동도 했습니다.</p> <p>3주차엔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아쿠아리움이 그리 큰 편은 아니었지만 내부에 불가사리 만지기, 4D 체험하기, 물개 공연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 만족스러웠습니다.</p> <p>캐필라노 현수교도 갔는데 기온이 조금 더 낮았고, 많이 걸었어야 돼서 편한 옷을 추천 드립니다. 캐필라노 안 기념품 샵엔 다른 기념품 샵에서 보지 못한 상품들이 많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겨울의 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불릴 정도로 비가 매일 왔습니다.</p> <p>해가 뜬 날이 3주 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타민D가 필수였고, 비가 미스트처럼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워터 프루프의 신발, 가방, 겹옷 등을 꼭 챙겨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틀 동안 눈이 정말 많이 와서 학교가 휴교를 했을 정도로 눈이 한 번 오면 정말 많이 오고 한국 눈과 다르게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p>

<p>안전</p>	<p>인구밀도가 한국에 비해 낮다보니 다운타운이나 번화가를 뺀 곳들은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혼자 다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다운타운에는 홈리스들과 마리화나 냄새가 많이 났지만 3주가 끝나갈 때쯤이 되니 냄새도 익숙해지고 홈리스들도 무덤덤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것과 홈리스, 마리화나에 비해 치안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홈리스들이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위협을 하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현지 분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도와주려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E-Hastings 거리가 위험하다고 하셔서 가본 적은 없고 버스타고 지나만 와봤는데 길거리에 홈리스들과 마리화나 때문에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리화나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났습니다. 차이나타운 또한 위험하다고 들었지만 해가 있을 때 가면 거리도 예쁘고 맛집도 많아 친구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숙소</p>	<p>홈스테이를 했고 1층과 지하가 있는 2층집이었습니다. 위치는 랑가라와 다운타운 사이였고, 랑가라 까지는 버스 한번 환승해서 40분정도 걸렸고, 다운타운까지는 버스 한번 타고 30분 정도 걸렸습니다.</p> <p>집은 기대한 것과 다르게 고물상 같이 지저분했고 집이 오래되어 전기나 물을 동시에 한 개 썩만 쓸 수 있었습니다.</p> <p>방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 매일 기침과 재채기를 많이 했고, 거의 낳았던 비염이 다시 심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침대 또한 오래되고 더러워 몸 곳곳 간지럼증이 심해서 마지막 날엔 거의 온몸에 피딱지가 생겼습니다.</p> <p>화장실은 한국과 다르게 건식이라 샤워하는데 불편했지만 3주차엔 거의 적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홈스테이 주인분이 성격이 좋으셨고, 나름 만족스러운 홈스테이 생활을 했습니다.</p>
<p>식사</p>	<p>3주 동안 홈스테이 주인분이 점심을 싸주셨고, 중국계 캐나다인이셨기 때문에 매일 볶음밥이나 카레 같은 밥 종류를 주셨습니다. 저녁은 거의 밖에서 친구들과 사먹고 들어갔는데 캐나다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베트남, 그리스, 중국 계열의 식당이 정말 많았습니다. 식당들은 가격이 비싸지만 서비스가 좋고, 맛있고, 양이 정말 많았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끔 집에서 한국에서 챙겨간 라면이나 참치로 저녁밥을 먹었습니다.</p>

교통	<p>캐나다의 대중교통엔 버스, 스카이트레인, 익스포 라인, 시버스 등이 있습니다.</p> <p>버스는 정류장이 길마다 자주 있고 버스도 종류가 많아 편했지만 연착이나 캔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조금 씩 일찍 나와야 했습니다. 또한 버스는 다른 구역으로 추가금 없이 갈 수 있어 개인적으로 지하철 보다 많이 이용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이 먼저 타거나 타고 내릴 때 까지 기사님이 항상 기다려 주셨고, 멀리서 승객이 뛰어오면 다 기다렸다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또한 좌석에 이어져있는 노란 줄을 잡아당기면 하차 벨이 울렸고, 내릴 때엔 앞문으로 내리거나 뒷문의 손잡이를 밀면 열렸습니다.</p> <p>스카이트레인과 익스포 라인 같은 지하철들을 한국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 카드를 찍었고, 한국에 비해 자리가 많고 승객이 적을 편이고 지하철이 두 칸 밖에 없었지만, 자주 오는 편이었습니다.</p> <p>도로에서 차들은 사람들이 건널 때 까지 여유 있게 기다렸고 골목에서는 항상 사람 먼저 건너도록 양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조금 험한 편입니다.</p> <p>길을 건널 때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 횡단보도가 열렸고 한국에 비해 건너는 시간은 짧은 편입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CAD 1100\$	기념품, 옷, 식사
곤돌라	약 80,000원	
유심	약 50,000원	KOODO
합계	약 4,25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밴쿠버의 겨울은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름에 가신다면 3주간의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가시는 걸 추천 드리지만, 겨울에 가신다면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같이 날씨 별로 어디를 갈지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물을 사 마실 경우 비싸기 때문에 가벼운 텀블러와 카드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목걸이 지갑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비가 정말 자주 오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신발, 가방, 겹옷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현금을 안 썼습니다. 트레블월렛 카드만 챙겨가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왔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있다면 마스터카드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리어는 최대한 비워 가지고, 생필품이나 옷도 밴쿠버에서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eSIM이 불가능한 모델이라 쿠도 유심을 사용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20GB라 부족함 없이 사용 했습니다. 출국 전 홈스테이에 메일을 보내 드라이기나 수건같이 부피,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의 유무를 미리 체크하고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 동안 영어 실력이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이 왔지만, 여러 단어나 문화들을 많이 배웠고, 발음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고 처음 만나는 외국인들이 발음이 좋다는 칭찬을 하니 자신감이 더욱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이렇게 까지 멀리 떨어져 지낸 것이 처음이라 많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처음 타는 버스부터 영어, 단위, 날씨, 풍경 모든 것이 새로웠고 그것에 적응해 나가며 나름의 쾌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일 분 일 초도 아까워 최대한 많은 것을 접하고 보았습니다. 당시엔 후회 없이 즐기고 있다 생각했지만 한국에 와 하나씩 곱씹어보니 더 돌아 다니 곁 하며 후회가 됩니다. 이런 기회를 준 학교에 감사했고, 더 욕심을 내 교환학생까지 가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어린이, 인종, 생김새 등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배웠고 알지만 쉽게 실천할 수 없는 한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미 일상이 된 것이 보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번 더 다양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3주가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밴쿠버 공립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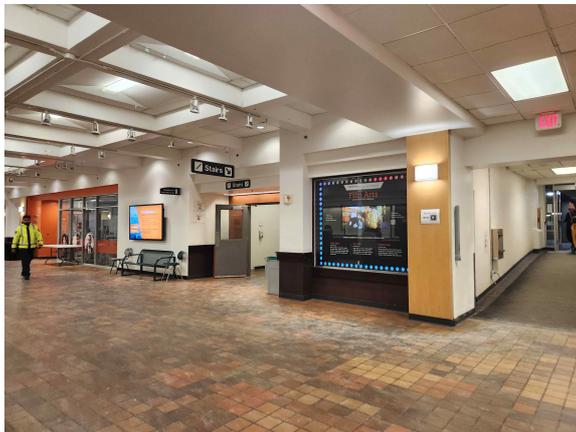
사이언스 월드 앞 공원



캐나다 플레이스



겨울 밴쿠버 주택



랑가라 컬리지 A빌딩 로비



가스타운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 x x	학번	2022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4.01.14.~2024.02.0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카이트레인 Langara-49th Avenue Station 역에서 도보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수업을 듣는 A빌딩 1층의 카페테리아에는 팀홀튼과 간단한 식사 거리를 판매하는 공간,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에는 스타벅스, T빌딩에는 서브웨이가 입점해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수기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T빌딩 서브웨이 옆에는 온수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업은 파견대학에서 제공한 바인더와 활동지로 진행되며 필기할 수 있는 공책도 제공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EO(English Only)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오전, 오후 수업의 첫 활동은 간단한 게임이나 퀴즈 등 잠을 깨울 수 있는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주차 별로 English Essentials, Culture, Global Citizen의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활동마다 2~3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영어로 의견을 나누고 답을 작성하거나 간단하게 발표하는 형식이었고, 2번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었습니다.분반 없이 순천향대학교 학생들로만 한 반이 구성되어 학생들 간의 영어 실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뒤처지는 학생 없이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과제는 부담 없이 10~20분 정도만 투자하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과 난이도였습니다.

Activity	<p>3주 동안 6번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외부 활동은 오후 시간에 진행되며, 오전수업을 30분 정도 일찍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활동 내용과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활동 장소에 도착하면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15시 정도에 집결했습니다. 대체로 수업이 마무리되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각자 귀가했습니다.</p> <p><Granville Island> : 외부 활동/ 조별 보고서 작성 조별로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활동지를 작성했습니다. - 외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면 우산과 방수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메이플 버터, 꿀, 연어포는 이곳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p> <p><Curling> : 외부 활동/ 과제 없음 퀸 엘리자베스 공원 인근의 컬링장에서 컬링을 배우고 팀별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오전수업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활동이 편한 운동화와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p> <p><Museum of Vancouver> : 외부 활동/ 개인 보고서 작성 Kitsilano Beach 인근의 박물관에서 각자 자유롭게 구경했습니다. 준비물은 따로 없었으며, 가방과 걸옷을 데스크에 모두 맡길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p> <p><Activity with Langara students> : 학교 내부 활동/ 과제 없음 한국 학생 3명당 랑가라 학생 1명이 배치되었으며, 각자의 문화를 교류하고 캐나다 생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순천향대학교로 올 교환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p> <p><Vancouver Aquarium> : 외부 활동/ 개인 보고서 작성 스탠리파크 내부의 아쿠아리움에 방문하여 각자 자유롭게 구경했습니다. - 체험과 쇼의 시간이 내부 모니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활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p> <p><Capilano Suspension Bridge> : 외부 활동/ 과제 없음 노스밴쿠버에 위치한 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에 방문하여 자유롭게 구경했습니다. 활동 후에는 모두 버스를 타고 학교로 이동했습니다. - 항상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방수되는 따뜻하고 편한 옷, 모자,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의 밴쿠버는 비가 자주 옵니다. 한국의 여름 장마처럼 쏟아지듯 오지는 않고 훑날리듯 내립니다. 날씨가 수시로 바뀌어 접이식 우산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 기온은 한국의 겨울보다는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기온이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아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겉옷은 숏패딩, 바람막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 이틀간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어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teams라는 프로그램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후에 보강으로 빠진 수업 시간을 채웠습니다. 만약 폭설이 온다면 집에만 있지 말고 주변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거나 눈 쌓인 동네를 구경하면서 최대한 즐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 귀가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겨울은 해가 짧아 5시면 어둡습니다. 다운타운은 밝고 사람이 많아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나, 버스를 환승할 때는 어둡고 거리에 홈리스가 있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 E. hastings 거리에는 홈리스와 약에 취한 사람이 많습니다. 해가 있을 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걸어서 지나가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대마 냄새가 진동해 힘들었습니다.
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검색했을 때는 너무 멀고 환승을 해야 해서 걱정했었는데, 막상 생활해 보니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매일 등곳길에 E. hastings 거리를 지나가야 했지만 아침 시간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괜찮았습니다. 귀가 시에는 E. hastings를 지나지 않는 경로로 돌아왔습니다. - 숙소는 3층 건물로 반지하 방에서 생활했고 식사는 1층 주방에서 했습니다. 반지하 구조는 작은 방 두 개와 화장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분리되어 있어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옆방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다른 홈스테이 학생이 살고 있어 화장실을 같이 사용했습니다(같은 성별). 방 안에는 옷장, 침대, 책상, 의자, 스탠드, 빨래통,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옷걸이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방은 적당히 따뜻했고 깨끗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규칙은 나갈 때는 보일러를 끄고 나갈 것, 씻을 때는 환풍기를 켜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대부분 온수탱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샤워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홈스테이는 보일러를 사용했고 샤워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층도 분리되어 있어 언제 씻든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에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기 때문에 매일 챙겨 먹을 자신이 없어서 홈대디께 아침은 챙겨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배고플 때는 홈스테이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배치된 빵과 과일이 있어, 그것을 먹거나 학교의 팀홀튼에서 도넛을 사 먹었습니다. - 점심은 홈대디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습니다. 홍콩 분이셨고, 고기+볶음밥류를 자주 싸주셨습니다. 첫날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 주셨고 그것을 기억해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외부 활동을 나가는 날에는 가방 무게를 줄이고자 미리 홈대디께 말씀드려 도시락 대신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거나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 저녁은 거의 친구들과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일찍 귀가하는 날에는 홈스테이에서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보통 저녁 메뉴가 다음 날 점심 도시락 메뉴였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교통 OT 할 때, 잘 정리해서 출국 전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1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compass card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통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출국일은 2월 3일이어서 이틀간의 교통 요금은 학교를 왕복할 수 있을 정도만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의 교통비는 따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 버스에서 스카이트레인 1회 갈아타는 루트나, 버스 3개 갈아타는 루트로 학교에 갔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의 속도가 빨라서 지도상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스카이트레인을 타는 편이 빠릅니다. -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와 버스 파업으로 며칠간 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기도 하고, 랑가라에서 홈스테이에 전화하여 가까운 스카이트레인 역이나 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홈스테이 가족이 바빠서 데려다 줄 수 없는 경우 선생님들께서 차로 등하교 해주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려 노력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20분 정도 걸어서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등하교했는데, 동네를 구경하면서 걸어가니 별로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즐겁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와 소요 시간도 비슷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sim	62,250원	phonebox 30일권 35기가
외식비	370\$	저녁 및 주말 외식비
기념품	580\$	과자, 영양제, 티, 머그컵 등
쇼핑	530\$	옷, 워터프루프 신발
티켓	135\$	Grouse mountain/Flyover/영화
기타	185\$	카페, 간식, 교통 등
합계	4,764,680원	환율 1\$=1,000원으로 계산

5. 출국 전 준비사항

[준비물]

1. 가방은 큰 캐리어 1개, 기내용 캐리어 1개, 백팩 1개를 추천합니다.

귀국 시에 기념품(쿠키, 시럽 등)이 생각보다 무거워 23kg을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기내용 캐리어 1개를 더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나눠주는 바인더의 크기가 크고, 매일 도시락통을 들고 다녀야 하며,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젖어도 되는 소재의 백팩을 추천합니다.

- 풀부킹으로 짐과 걸옷을 기내 짐칸에 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체크인 시 기내 캐리어를 위탁수화물로 부쳐줍니다. 또한, 부피가 큰 패딩을 계속 안고 있기엔 자리가 좁습니다. 얇은 걸옷을 입고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방수 소재의 옷

밴쿠버의 기온은 대체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방수 소재의 걸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라우스 마운틴이나 휘슬러에 갈 계획이 있다면 방수 바지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방수 신발

컬링,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활동의 경우에는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어그 부츠보다는 장화가 낫습니다. 방수 신발이 있다면 챙기고, 없다면 메트로타운에 있는 vessi 매장에서 방수 운동화를 사 신는 것도 좋습니다(약 120~220\$).

4. 물통, 텀블러

생수가 비싸기 때문에, 정수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통이나 텀블러를 챙

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노트북보다는 태블릿

수업은 모두 프린트물로 진행되기에 노트북, 태블릿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번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태블릿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수강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노트북).

6. 삼푸 양

가기 전에 삼푸를 얼마나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100mL짜리 하나 가져가서 조금 남았습니다(여자 중단발).

8. esim

네이버 캐나다워홀카페의 캐나다유심공구를 신청했습니다. Phonebox 30일권 35GB(\$55)를 이용했으나 15GB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학교와 홈스테이의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용했고 외부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홈스테이]

1. 출국 전 홈스테이 가족에게 메일 보내기

수건, 드라이기, 옷걸이 등의 여부를 여쭙보면 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여쭙보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파견의 경우 연말 휴가 기간으로 인해 메일 답장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2. 홈스테이 선물

저는 메일로 혹시 한국에 궁금했던 제품이나 음식이 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밴쿠버에 한인마트, 아시안마트가 많기에 음식보다는 한국을 상징하는 그림의 마그넷이 후에 저를 기억하기에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그넷과 마스크팩을 준비했습니다.

[관광]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과 주말에 갈 곳을 미리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부 활동의 경우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비가 안 오는 주말에는 노스밴쿠버나 빅토리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름이 많긴 했지만, 그라운드스 마운틴 전망대에서 본 풍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2. 맥아더글랜 아울렛은 평일에 가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평일에 갔을 때는 주말에 없었던 디자인과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2이기 때문에 평일에 갈 경우, 추가 교통비가 들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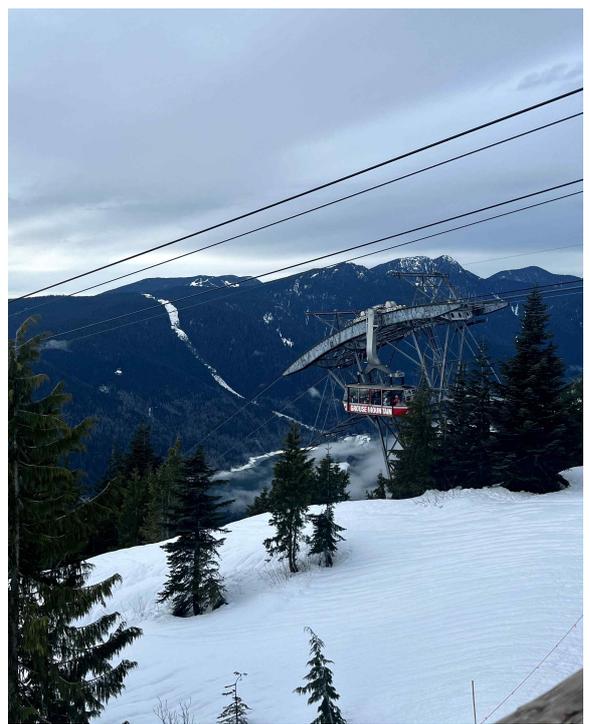
파견 기간 중의 폭설과 버스 파업으로 수업이 취소되기도 하고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양의 눈을 보았고 학교에 안 가는 동안 시차 적응에도 성공했으며, 버스를 타고 다녔으면 보지 못했을 주택가의 풍경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파견된 순천향대학교 학우들과 더 푹푹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현지인 체험을 했다며 웃는 학우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량가라에서도 두 번의 이벤트가 있는 그룹은 처음이라며 웃었지만,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지해 주었고 최대한 학생들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니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한마디 할 때마다 번역기를 돌렸지만, 점차 번역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고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한국에만 있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폭설이 온 날 홈스테이 앞 도로



Grouse mountain



등곳길 새벽 하늘



Earnest Ice Cream (추천)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권 x x	학번	2023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4. 1. 14. ~ 2024. 2. 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랑가라 대학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Langara-49th Avenue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하철을 이용해 downtown, metro town을 방문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p> <p>랑가라 대학에 스타벅스, 써브웨이, 팀홀튼이 있어서 음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랑가라 대학의 서점에는 랑가라 후드티와 필기구를 판매합니다. 학교 내에 기숙사는 없지만 daycare center가 있습니다. 학교 A 건물 1층에 office가 있어서 궁금한 점은 담당 선생님께 여쭙볼 수 있습니다.</p>
수업	<p>겨울 단기 어학연수는 순천향대 학생들로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이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English only 규칙을 이용해 수업합니다.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바인더는 수업 교재로 활용됩니다.</p> <p>활동마다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모둠활동을 진행합니다. 모둠 활동에서 승리할 경우 때로는 간소한 경품을 주시기도 합니다! 간단한 발표가 2개 있었습니다. 모두 모둠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영어 발표 실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알려주십니다. 정해진 형식보다 모둠이 자율적으로 발표를 구성합니다.</p> <p>선생님은 열정적으로 수업하십니다. 수업이 지루하지 않도록 활동적인 수업으로 구상하십니다. 학생의 참여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끼리 대화로 제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영어를 천천히 말씀하시기에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p> <p>일주일에 1개 영어로 일기 쓰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과 느낌을 영어로 작성합니다. 수업 마지막 날은 closing ceremony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노래, 춤 등을 준비하여 담당 선생님들께 보여드립니다. 폭설로 휴교할 경우 참여하지 못한 수업은 보강으로 보충합니다. 온라인 화상 수업도 필요시 진행하기도 합니다!</p>
Activity	<p>매주 2~3개의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밴쿠버의 명소에 방문하는 활동입니다. Granville Island, Curling, Museum of Vancouver, Vancouver Aquarium, Capilano Suspension Bridge를 방문했습니다. 몇몇 장소에는 활동지를 작성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장소에 관련된 간단한 과제를 진행합</p>

	<p>니다. 야외 활동은 2~3시간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장소를 온전히 구경하기에는 짧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야외활동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활동 장소에 더 머물 수 있습니다!</p> <p>랑가라 대학 학생과 대화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순천향대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영어로 대화하는 사교활동입니다. 랑가라 대학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친해진다면 개인적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밴쿠버의 겨울 날씨는 한국보다 춥지 않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눈 오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해가 온전히 떠 있는 날은 5일 내외였습니다. 얇은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우산과 방수 신발을 가져가면 좋습니다!</p>
안전	<p>downtown에는 길거리에 마약 한 사람과 노숙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랑가라 대학 근처는 주택가로 안전합니다. 겨울에 밴쿠버는 식당이 6시 정도에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주택가에는 행인이 거의 없습니다.</p>
숙소	<p>각자가 배정받은 홈스테이에서 지냅니다. 홈스테이는 각자의 집마다 모두 다릅니다. 1인 1실을 기준으로 생활합니다.</p>
식사	<p>점심은 랑가라 대학교의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점심으로 먹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이 직접 점심 도시락을 싸주시기도 하고 학생이 점심 도시락을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락은 홈스테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p> <p>저녁을 친구들과 밖에서 먹는다면 미리 홈스테이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을 경우 홈스테이 가족과 약속한 저녁 식사 시간에 저녁을 먹습니다.</p>
교통	<p>랑가라 대학에서 compass 교통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교통 금액이 선불로 충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교통비를 충전할 경우 지하철역에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버스, sky train을 주로 이용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4,06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3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로밍	8만원	
식비+쇼핑	60만원	
합계	약 37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1. 홈스테이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홈스테이 신청서를 반영하여 배정하기 때문에 상세히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홈스테이 가족을 배정받은 후 이메일로 연락해 보세요.
수건, 드라이기, 점심 도시락 등 미리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물어보세요! 추가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물건도 알 수 있습니다.
3. 기념품을 구매하면 짐이 많아집니다.
캐리어에 공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기념품을 많이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기내 반입 캐리어를 따로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짐이 너무 많을 경우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물을 구매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병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5.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좋습니다.
3주가 빨리 지나갑니다.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많은 장소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6. 홈스테이 가족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선물도 좋아하시고 한국 음식 선물도 좋아하십니다.
7.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과 방수 신발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장화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캐나다가 생각보다 춥지 않았기 때문에 룽패딩은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 컬링 수업을 할 때 장갑이 필요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단기 어학연수에 가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인종, 새로운 수업을 들으며 가치관이 변화하였습니다. 세상이 넓다는 말을 실제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옳은 문장으로 말하는 것인지 확인 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천천히 영어로 말씀해 주시기에 듣기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영어 말하기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어 스피킹을 꾸준히 연습할 계획입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즐거웠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에게 한국 음식을 요리해 드리며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홈스테이 가족과 식사 시간에 이야기할 때 스피킹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일간의 버스 파업으로 등하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스테이 가족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했습니다.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조금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스스로 해냈던 경험들이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Vancouver Aquarium



Grandville Island



Vancouver Public Library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pilano Suspension Bridge



Vancouver Art gallery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반 x x	학번	2023 x x x 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기간	2024.01.14.~2024.02.0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한국과 다른 시설에 새로움을 느꼈다. 문을 여닫는 방식과 화장실의 자동 방식 등 사소한 차이도 있었지만, 어딜 가든 담배 냄새가 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특히나 나이를 묻지 않는 문화라 그런지 교수님을 포함한 누구와도 편하게 스몰토크가 가능해 신기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일 처리를 통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 안심할 수 있었다.</p>
수업	<p>한국과 달리 모든 수업이 참여형이었으며, 수업에서 소통이 주가 된다는 게 신기했다. 새로운 형식의 수업이라 적응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으며 특히나 수업 중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가장 새로웠다. 한국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곳에선 당연한 문화라 즉각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다. 두 번의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발표 중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대부분 팀 활동으로 진행되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p>
Activity	<p>유독 기억에 남는 활동은 컬링이다. 직접 몸으로 배우며, 팀을 나눠 경기를 진행했는데 처음 배워 본 스포츠라 서툰 실력임에도 진중하게 경기에 임하여 박빙의 결과를 내 더 기억에 남는다. 또한 랑가라 컬리지 학생들과 만나 서로에 대해 소개하며 얘기를 나눈 활동도 즐거웠다. 개인적으로 해외 학생들과의 만남이 처음이라 새로웠으며, 또래라 그런지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기본적으로 먹구름이 끼있는 하늘이었으며, 눈이 많이 와 이를 정도 학교 문을 닫았다. 해가 잘 들지 않는 날씨라 3주 중 며칠 정도만 햇빛이 비쳤으며, 햇빛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안전	통금 시간을 준수하고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는 이상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졌다. 다만 어딜 가든 대마 냄새를 맡는 일이 잦았으며, 종종 다운타운에서 약에 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숙소	처음 배정된 홈스테이 집에서 문제가 생겨 옮기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음식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홈스테이 집에서는 문제없이 잘 지냈으며,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해 일상 회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식사	아침은 과일이나 토스트를 먹었으며, 평일 점심은 샌드위치로 해결했다. 저녁도 거의 홈스테이 집에서 먹었으며, 주말 점심이나 저녁, 간간히 평일 저녁은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했다.
교통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제공한 Compass Card를 이용했으며, Zone 2는 대부분 주말에 가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은 따로 Compass Ticket을 구매하지 않고 트래블월렛 카드를 이용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KRW ₩2,854,060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KRW ₩41,37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CAD \$239.07	출국 후 트래블월렛 충전
교통비	CAD \$16.30	출국 후 트래블월렛 충전
쇼핑	CAD \$492.71	출국 후 트래블월렛 충전
문화생활	CAD \$61.96	출국 후 트래블월렛 충전
합계	KRW ₩2,895,430 CAD \$817.04	

5. 출국 전 준비사항

3주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갑작스럽게 바뀐 음식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으니 한국 음식을 챙겨갈 것. 또한 겨울에 파견 간다면 반드시 우산을 챙길 것. 사람마다 사용 금액이 다르므로 환전보단 카드 사용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전보다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에 자연스러워졌으며, 언제든지 감사 인사와 사과를 건네는 문화를 통해 이런 사소한 커뮤니케이션이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도시 자체가 주는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는 듯한 분위기에 그간 한국에서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늘 경쟁해야만 했던 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3주였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2024.01.18.</p>	<p>2024.01.21.</p>
	
<p>2024.01.21.</p>	<p>2024.01.24.</p>



2024.01.26.



2024.01.29.